

박사학위논문

프랑스 소설 제목의 번역 연구

-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통시적 고찰과 번역전략 분석 -

성미경(Mikyung Sung)

한국외국어대학교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제목은 “텍스트에서 사회적 담화에 참여하는 유일한 요소”(Hoek 1981: 291)이고 번역 제목은 “출발 문화와 수용문화의 이질적 요소들이 뒤섞이는 특별한 공간”(Risterucci-Roudnicky 2008)인 만큼, 국내에서 110년간 번역된 프랑스 소설 제목(4,232개)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이 번역에 미친 영향을 통시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2. 연구 방법

2.1. 번역 영향 요인

번역전략에는 언어적 요소 이외에도 번역 전통, 이데올로기, 문화의 친숙도 등 다양한 텍스트 외적 요소들이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윤후남 2012: 154-15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네 개의 사회문화적 요소, 즉 번역의 직접성, 번역 정책, 문학의 위상, 번역주체를 중심으로 번역과의 연관성을 탐색했고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중역된 텍스트에서는 명시화, 생략, 첨가 방식이 더 빈번히 나타나고 텍스트 길이도 길어질 수 있어(Ringmar 2012: 142) 번역의 직접성, 즉 중역 여부를 고찰 대상으로 삼았다.

www.kci.go.kr

번역정책의 경우, Toury(1995: 58)에 의하면 번역가가 따르게 되는 환경 규범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출판·번역시장에 큰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는 국제 저작권 보호 조약인 베른협약(조재룡 2011: 234-235)을 중심으로 번역과의 연관성을 살폈다.

문학의 위상이 번역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높은 위상을 누리게 된 문학사조에 의해 타 문학이 자의적으로 개작(rewrite)되기도 하고(Lefevere 1992a: 2-39) 낮은 위상을 점한 비서구권의 문학이 서구권에서 번역될 때는 ‘자국화(domestication)’ 전략이 적용되기도 한다(Venuti 1995: 2-5).

번역주체는 원문의 스토리를 특정한 방식으로 프레이밍 할 수 있고(Baker 2007: 158) 원어를 따르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Poizat-Xie 외 2017: 383-384).

2.2. 번역 영향 요인별 분석

통시적 고찰을 위해 분석 대상 기간(1906~2015년)을 총 세 개의 시대로 나누었다. 일역본을 토대로 번역이 이루어진 ‘중역 시대(1906~1955년)’, 프랑스어 전공자가 번역주체로 등장한 ‘원문 번역 시대 1(1956~1995년, 이하 ‘원문 1’)', 베른협약 체결 이후의 시기를 ‘원문 번역 시대 2(1996~2015년, 이하 ‘원문 2’)'로 구분하였다.

제목에 적용된 번역방식은 전략과 기법으로 이분하여, 전략에서는 거시적 차원의 번역 방향성(ST 지향적, TT 지향적)을, 기법에서는 미시적 차원의 변이(첨가, 생략, 대체 등)를 살폈다.

번역 영향 요인별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중역 시대(137개)와 ‘원문 1’ 시대(2,404개)의 번역 양상을 비교하여 번역의 직접성과 번역전략/기법 간 연관성을 밝혔다.

번역정책(베른협약)과 번역 간 상관관계는 ‘원문 1’ 시대와 ‘원문 2’ 시대(1,691개)의 번역 양상을 비교하여 탐색했다.

국내 번역문학에서 프랑스 문학이 점한 비중을 먼저 파악한 후 프랑스 문학의 비중 추이와 번역기법의 활용 추이를 시대별로 대조하였다.

번역주체의 경우, 20년 이상 번역 활동을 해온 번역가 2명과 문학 전문 출판사에서 10년 넘게 프랑스 문학을 비롯한 해외 문학 편집을 담당해온 편집자 1명을 섭외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서 제목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편집자(Genette 1987: 77; Sofronidou 2019: 117)도 번역주체에

포함하였다.

3. 분석 결과

번역된 전체 제목들을 분석한 결과, 어느 시대나 원어를 따르는 보존 전략(ST 지향적)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하지만 원문 충실도와 두 번째로 많이 활용된 번역기법에 있어서는 시대마다 차이를 보였다.

이어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결과이다.

3.1. 번역의 직접성

번역의 직접성은 중역 시대와 ‘원문 1’ 시대 간 번역 양상 차이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역 시대에는 일역본의 영향으로 원어를 따르지 않는 변형 전략(TT 지향적)이 ‘원문 1’ 시대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고 변형 전략을 활용하는 방식도 달랐다. 즉, 중역 시대에는 원제와 완전히 다르게 번역하였으나 ‘원문 1’ 시대에는 원제의 일부만을 다르게 번역하려 했다.

또한, 원작의 주제목을 처리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중역 시대에는 원제를 번역서에서 주제목으로 삼지 않고 괄호 안에 넣어 부제 형식으로 처리한 반면, ‘원문 1’ 시대에는 원작의 주제목은 번역서에서도 주제목으로 삼았다. 하지만 두 시대 모두 원작의 부제는 번역하지 않았다.

3.2. 번역정책(베른협약)

‘원문 1’ 시대와 ‘원문 2’ 시대 간에도 양상 차이가 존재했다. 재번역 시, ‘원문 1’ 시대에는 기존 제목이 원어를 따랐든 따르지 않았든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원문 2’ 시대에는 잘 알려진 기존의 제목조차도 원어에 더 충실한 제목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나타났고 원작의 부제까지도 모두 번역했다.

그리고 저자 인지도가 낮은 작품이나 출판사 간 경쟁이 치열해진 시기에 원어를 따르지 않는 변형 전략의 활용이 늘었던 ‘원문 1’ 시대와 달리, ‘원문 2’ 시대에는

이런 요소들에 좌우됨 없이 언제나 원문에 충실히 하고자 했다.

3.3. 문학의 위상

국내에서 프랑스 문학의 위상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높은 위상을 누렸던 중역 시대와는 다르게 ‘원문 1’ 시대 이후에는 국내 정치 상황, 세계화 등으로 프랑스 문학의 비중이 점차 줄었고 ‘원문 2’ 시대에 가서는 그 비중이 10% 미만으로 까지 낮아져 주변적 위치에 놓였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한 프랑스 문학의 위상 추이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인 번역기법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게다가 일부 시기에만 상관관계를 드러내 프랑스 문학의 위상이 번역 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3.4. 번역주체

인터뷰 결과, 번역주체는 순수 문학의 경우 원문 존중을 최우선시했다. 그러나 원서의 제목이 저자의 의도나 작품 내용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원어를 따르지 않기도 하였다.

문학의 위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언어의 위상은 어느 정도 반영되어 특정 번역기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독자가 잘 아는 영어로 쓰인 작품의 제목에서는 타 언어보다 음차 방식이 많이 활용되었다.

4. 결론

모든 시대에 걸쳐 원문에 충실한 번역전략이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소설과 같은 순수 문학작품에서는 원어를 따르려는 번역주체의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시대별로 원문 충실도와 두 번째로 많이 쓰인 번역기법이 달랐던 것은 번역의 직접성과 번역정책(베른협약)의 영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10년간 국내에서 번역된 프랑스 소설 제목을 전수조사하여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첫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번역 제목에

www.kci.go.kr

적용된 번역전략과 번역기법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소수의 번역주체를 인터뷰를 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참고문헌

- 윤후남. (2012). 한국문학번역과 처방적 번역 규범의 문제점-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 규범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0(3), 147-170.
- 조재룡. (2011). 번역의 유형들. *문학과 지성사*.
- Baker, M. (2007). Reframing conflict in translation. *Social Semiotics*, 17(2), 151-169.
- Genette, G. (1987/2002). *Seuils*, Paris: Editions du Seuil.
- Hoek, L. H. (1981). *La marque du titre: dispositifs sémiotiques d'une pratique textuelle*. La Hague/Paris/New York: Mouton.
- Lefevere, A. (1992a).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New York: Routledge.
- Poizat-Xie, H. and Zhang, Y. (2017). À la recherche d'un titre littéraire idéalement traduit: le cas du chinois vers le français. *Meta*, 62(2), 368-395.
- Ringmar, M. (2012). Relay translation, in: Y. Gambier & L. v.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3, 141-144.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Risterucci-Roudnick, D. (2008). *Introduction à l'analyse des œuvres traduites*. Paris: Armand Colin.
- Sofronidou, F. (2019). La traduction des titres d'œuvres littéraires françaises en grec: une présentation contrastive. *Atelier de traduction*, 31, 113-135.
- Toury, G.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Venuti, L.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New York: Routledge.

본 초록은 ‘성미경. (2024). 프랑스 소설 제목의 번역 연구: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통시적 고찰과 번역전략 분석’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Author's email address

mksung_99@naver.com

About the author

Mikyung Sung earned her PhD at GSIT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2024.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ation and socio-cultural context.

www.kci.go.kr